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0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중시조 쌍청당 선조님 세일사 엄숙히 봉행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판암동 산소골, 전국 종인 200여명 참제



▲ 쌍청당 세일사를 마치고

2023년 11월 13일(음력 10월 1일) 님의 세일사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판암동 산소골 현지에서 쌍청당 선조 요 며칠 가을 날씨답지 않게 기운이

내려가 쌀쌀했는데 행사 당일에는 일기예보와 다르게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이 없어 포근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종원들이 참제했다.

제례는 쌍계당공파 송철기 직일이 선조님의 행장을 설명하고 창홀을 청하자 송창공파 송구영 집례의 창홀로 세일사가 시작되었다.

초헌에는 대종손 송교진, 아헌에 감역공파 송춘영, 종헌에 잠부공파 송만호, 축관은 우암문정공파 송영문, 집사는 연안공파 송지영, 송창공파 송치안, 진설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맡아 봉행하였다.

이어서 산신제를 봉행하고 쌍청회관

으로 이동하여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쌍청회관 좌석분만 아니라 옆 통로와 뒤까지 종원들과 쌍청당상 수상자가족 등이 식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송인집 총무유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대종회장(송석근), 파유사회 의장(송성호), 대종손(송교진)의 인사에 이어 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쌍청당상 시상식을 하였다.



▲ 정기총회 장면

〈상무유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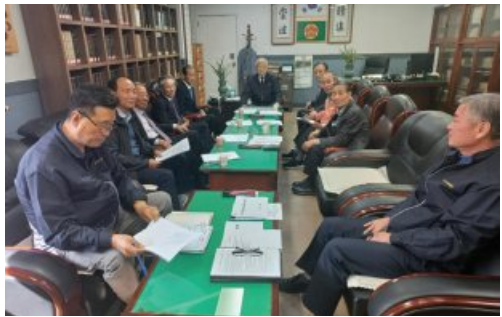
2023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대종회 종규 제11조에 의거 상무유사회 의장(대종회장)의 인사말과 오늘 심의할 안건의 요지를 말하고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대종회 회장실에서 상무유사 8명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무유사회 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3차 파유사회 의에 상정할 2023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용전동 토지보상금 활용(안), 쌍청회관 명도소송의 건 처리

(안)을 장재유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논의하여 일부 자구수정 등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이어서 한국성씨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종중자산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서명에 관한 건을 총무유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상정안건 모두 상무유사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상정(안)을 심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쌍청당 세일사와, 지평공 세일사에 대한 제판 분정은 대종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 상무유사회의

〈파유사회의〉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

2023년도 제3차 정기 파유사회 회의가 10월 27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전시 대덕구 범동 대종회 건물 지하 1층에서 열렸다. 파유사 정원 46명 중 44명이 참석하여 송인집 총무유사의 사회로 성원 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종기에 대한 경례, 파유사회 의장, 대종회장, 대종손 인사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은 회의록 서명유사로 청풍공파 송백순, 빙호공파 송용호 파유사를 지명하였다.
종무보고, 전자회의록 낭독 및 승인은 발송된 종무보고서, 회의록 사본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수정없이 파유사들의 승인을 받았다.
안건 심의로는 제1안으로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제2안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장재유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질의응답을 거쳐 계수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제3안은 쌍청회관 명도소송의 건 처리(안), 제4안은 용전근린공원 토지보상금 활용(안), 제5안은 한국성씨총연합회의 종중기본법 서명의 건을 심의하였다.
4안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4안을 제외한 안건은 가결되었다.
기타 토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어 12시 30분경 회의를 모두 마쳤다.



▲ 파유사회의

쌍청당상 시상

쌍청당 대상 송태영, 대종회장 표창 송하영, 송규식, 송석환, 송민석



송태영



송하영



송규식



송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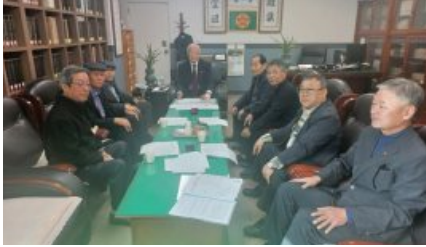
송민석

쌍청당 세일사 봉행 후 쌍청회관에서 거행된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쌍청당 대상에 고창공파 송태영, 송조돈목정신이 투철하여 대종회 운영에 솔선수범하여 타종인의 귀감이 된 호군공파 송하영, 추파공파 송규식과 맡은 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여 은송 가문의 명예를 높인 후암공파 송석환, 주부공파 송민석이 대종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각각 상패와 부상으로 금일봉이 수여되었다.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2023년 10월 23일(월) 대총회 사무실에서 포상심사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쌍청당상 자격 결정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석근 대총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심사에 앞서 포상심사위원에게 상격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쌍청당상에 추천된 후보자로는 고창공파 송태영, 주부공파의 송민석, 후암공파의 송석환 이렇게 3명의 후보자가 신청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포상



▲ 포상심사위원회

심사규정에 의한 추천 사유, 공적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결정할 결과 은송 발전과 송조돈목의 정신에 기여한 점과 사회적으로 은송의 명예를 높인 공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쌍청당상 대상에는 고창공파 공사원, 파유사 그리고 목사공 총무, 회장과 대총회 회장을 역임하여 중증 발전에 많은 기여

를 한 고창공파 송태영을 선정 의결하였고, 주부공파 송민석은 공학박사로서 대기업 포스코의 최연소 임원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훌륭히 활동하고 있으며 부친의 사직공 중증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후암공파 송석환은 지질학박사로 중부대학교 교수로서 후학육성 활

동을 하면서 후암공파 총무로 활동하는 인재들로 대총회장 표창패 대상자로 심사위원 전원이 선정 의결하였다.

아울러 대총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으며 음향기기를 헌성한 호군공파 송하영, 그리고 추파공파 송규식은 중증일에 관심도 많고 특히 장학금을 헌성하도록 노력하는 등 공과가 커서 대총회장 표창패를 같이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쌍청당 세일사 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한국법사학회 학술대회 송석근 대총회장 축사

2023년 10월 19일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암사적공원 이직당에서 한국법사학회(회장 정병수)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우암 송시열선생의 법사상, 우계 성혼선생과 우암 송시열 선생의 법정치사상, 로마법상 조합의 결성과 조합원의 변경, 임대인질권의 법역사적 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 한국법사학회 학술대회 송석근 대총회장 축사장면

이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세일 교수, 충북대학교 손경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성중모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승수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석 교수가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은진송씨 대총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송석근 대총회장과 우암문정공파 송안호 공사원, 송봉희 총무, 송종호 총무, 송영완 종원,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 송인웅 종원, 동춘당문정공파 송용길 종원, 송문기 종원, 동파공파 송수호 종원 등 다수가 참여하였는데 대총회장의 축사 전문을 등재한다.

- 축 사 -

계묘년 한 해를 결실하는 菊香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은송의 우암 송시열 선조님의 얼이 서려 있는 남간정사 이직당에서, 동서양의 법문화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는 한국법사학회 2023년도 추계 정례 학술발표회를 하는 뜻깊은 행사에서, 불초 후손이 찬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술

발표행사를 개최하는 한국법사학회 정병호 회장님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고세일 교수님, 그리고 한국법사학을 연구 발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회원 여러분께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암 송시열 선조님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 큰 선비로 유일한 송자 존칭을 받든 선조님으로 문묘에 배향된 18賢人의 한 분이고, 조선왕조실록에 선조님 휘(諱)가 3천번 이상 기재되어 있는, 그 시대의 정치와 학문과 사상에 미친 바가 광대정명한 선조님께서 남긴 경세사상이, 동서양의 법문화의 역사에 어떤 의미와 결실을 낳을 것인지 이 연구 발표회에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하여 은송의 승모하는 우암 선조님의 학문과 정치사상이 체계적으로 재조명되어, 동서양의 법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술발표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 행사를 위하여 어려운 역할을 맡아 연구 발표하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특히 학술발표회 준비를 하신데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은 충남대학교 최윤석 교수님과 서울 시립대학교 성중모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맺으면서, 한국법사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총총히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은진송씨 대총회 회장 송 석 근

쌍청당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시행

대중가 경내에 있는 쌍청당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이번 보수공사는 2000년에 보수한 이후 23년만이다.

1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시와 대덕구청에서 시비 85%, 구비 15%로 시행하는 공사로 2023년 8월에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막상 기와를 전부 내려 지붕을 해체하고 보니 90%이상의 서까래 등이 썩먹고 썩은 것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었고, 현재 대전시와, 대덕구청에서 추가공사비 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대총회에서는 추가공사에 쌍청당 주변 수목전지공사, 바닥 주변 배수시설공사, 그리고 쌍청당 출입문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공사배경 : 쌍청당 지붕의 노후화, 양도회벽 균열

◆공사내용 : 산자이상 해체보수, 기

와교체 30%(암기와 814매, 수키와 376매, 착고 13매), 기둥 동바리 이음, 기둥 동바리 2개소 교체, 목기연 연합 및 연합 100%교체, 기둥 동바리 주변 창호해체 재설치, 장판지 바르기, 쪽마루 교체



▲ 보수공사현장

◆용어설명

산 자 : 서까래 위에 흙을 받기 위해 엮어 건너질러 놓은 가는 나무
동바리 : 마루 밑을 받치는 짧은 기둥
목기연 : 작은 서까래
연 함 : 기와를 엮기 위한 거치대

류조비 정려각 방염 및 방충제 도포



▲ 류조비 정려각

우리 은진송씨 대총가, 회덕 쌍청당과 동춘당 고택 사이에 세워진 고흥류

씨 정려각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5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2023년도 목조문화재 방염, 방충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2023년 10월 5일 오후에 방충공사 전문가 4명이 정려각 내부와 외부, 출입문에 방충약제를 뿌리고 건조하기를 반복하여 3회의 방충작업을 마쳤다.

제14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제14회 효문화뿌리축제가 전국 100여 성씨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뿌리공원에는 전국의 244개 문중의 성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은진 송씨도 고유번호 136번으로 조형물(성씨 유래비)이 설치되어 있다. 각 성씨별 문중 입장 퍼레이드는 이틀째인 14일(토) 10시부터 있었는데 우리 문중에서는 대총회장 송석근, 대중손 송교진, 연안공파 송기선 공사원 등 각파의 종인들이 멀리 서울, 청주와 대전지역에서 100



▲ 뿌리공원 효문화뿌리축제

여명이 참석하였다. 대총회에서는 매년 「가훈씨주기」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주최측인 중구청에서 부스운용을 대폭 축소하여 우리 문중은 문중퍼레이드에만 참여하게

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하신 종인들은 삼삼오오 지정된 음식점에서 정담을 나누며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대총회는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다. 날씨가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입장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신 종인 여러분께 은송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해본다.

TJB대전방송 영상에세이(도시, 시간을 품다) 방영

TJB대전방송 TV프로그램 「UHD 영상 에세이」에서는 대전의 유서깊은 문화재의 의미를 살리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우리 은진송씨 대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쌍청당에 대한 촬영 협조요청을 하여 2023년 5월 26일(금) 9시 동춘당 고택에서 송석근 대총회장과 세월당문화공파 송인무 공사원이 참석하여 인터뷰와 촬영에 응하였고 그 편집이 완성되어 2023년 9월 6일에 방영되었다. 그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자료실/동영상자료실에 등재하였다.

추석 명절맞이 선대조님 묘소 성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종회 집행부(송석근 대종회장,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는 선대조 묘역에 성묘를 했다. 원래는 추석 전에 성묘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성묘를 못하고 부득이 추석이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성묘하게 되었다.

먼저 대전 동구 사성동 평산공(4세 斯敏사민)선조님 묘소, 정랑공(8세 順年순년) 선조님 묘소에 엄숙히 성묘하고, 이어서 건너편 산기슭에 모신 사직공(7세 繼中계중)과 주부공(8세 眉年미년) 선조님 묘소에 성묘하였다. 다음으로 동구 마산동으로 이동하여 추원사에 모신 상4대 선조님 신위 앞에 정중히 예를 올리고, 진사공(5세 克己극기)과 류조비산소에 올라가 묘소와 주변 잡초, 잡목을 제거하고 계묘년 한가위를 맞이하여 선조님의 명복과 후손의 번영, 안녕을 고하고 정



▲ 추석 맞이 성묘

중히 성묘하였다. 그리고 나오는 길목에 주산동에서 지평공(7세 繼祀계사) 선조님 묘소에 성묘하고 마산동, 주산동에 모신 선조님 산소에 향배하였다.

동구 판암동 은송의 중시조이신 쌍청당(6세 儵유) 선조님 산소에 성묘하면서 대종회의 현 실정과 후손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깊이 사죄하는 고유를 올리고, 이사동 목사공(8세 遙年요년) 선조님 산소에 성묘하며 지난 여름 장마, 태풍으로 무너진 곳이 없는지 별초는 잘 되어있는지를 둘러보며 중종의 발전과 종원들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며 성묘를 마쳤다.

이날 성묘 중 유심히 살펴본 바 추원사 뒤편 50m쯤에 쓰러진 소나무가 발견되었고, 지평공 묘역 뒤편에도 일부 소나무가 고사된 것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사목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상주 흥암서원 추향

지난 10월 16일 상주에 있는 흥암서원에서 추향제가 열렸다. 이번 추향제에는 동춘당 문정공 종원 8명이 함께 참제하고 돌아왔다.

흥암서원은 퇴계학맥의 남인계가 주류인 영남지역에 유곡 이이를 종장으로하는 기호학맥의 적전으로 평가받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을 단독으로 배향한 유일한 사액서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앞두고 있으며, 서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정비되어 나날이 발



▲ 흥암서원 추향제 마치고

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지난 9월12일 장성군 유림(대표 박래호) 65명이 방문하여 봉심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전남 장성지역 유림들의 상주 흥암서원 봉심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와, 소통과 화합, 포용의 리더십으로 평생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삶을 실천하고 사셨던 동춘당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일가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수용 송갑조 신도비 탁본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11번지 산소골에 세워진 수용 송갑조(우암 선조님)의 부친. 1574~1628 향년 55세) 신도비는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66호)이다.

안동김씨 가문(대구화수회)에서 송조사업으로 <안동김씨 금석문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선조 김수항(金壽恒)의 글씨를 탁본하고 싶다는 공문을 2023년 8월 대종회에 보내왔기에 대전시청 문화유산과에 신청하여 9월 1일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개최결과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23년 9월 22일에 대전시청 공무원(학예사)과 시청에서 지정한 문화재수리전문가 손환일 박사와 안동김씨 가문의 탁본전문가 김부일 등 4명이 신도비의 앞뒤좌우 4면을 탁본하였다. 탁본에 앞서 불순물이 문

어 있는 비석을 물로 세척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금석문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종회에도 보내주기로 하였다.



▲ 수용 송갑조 신도비 탁본 장면

※송갑조 신도비 : 1665년 건립. 자(子) 송시열이 찬(撰)하고, 동족(同族) 송준길이 서(書)하였으며, 김수항이 전(篆)하였다.

※김수항 : 1629~1689(향년 61세). 영의정. 서인의 중진. 노론의 영수. 송시열, 송준길로 대표되는 산림과의 정치적 연대.

2023년도 대전지역 성현(聖賢) 추향제

1. 회덕향교(懷德鄕校)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 안길126(읍내동)에 있는 회덕향교(전교 조만형)에서는 9월16일(음력 8월2일 초정)에 관내유림 100여분이 참석하여 추기석전대제를 엄숙하게 봉행 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이용기(李龍基), 아헌관에는 대전한사회 회장 류종열(柳鐘烈), 종헌관에는 비봉서당 원장 송재선(宋在仙), 동분헌관에는 무송윤씨 종친회장 윤태후(尹泰厚), 서분헌관에는 회덕향교장의 강창선(姜彰善), 예차헌관에 최재문(崔在文), 집례에 향교장의 송인수(宋寅受), 대축에 향교장의 이영진(李永珍) 외 집사 등이 11시부터 12시까지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회덕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聖)과 송조 4현(賢)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으며 18현중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두분이 우리 은진송씨이다.

2. 문충사(文忠祠)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73번길44 (용운동)에 있는 문충사(이사장 전재환)에서는 10월 6일 (음력 8월 22일 중정)에 그동안 전국 각처에서 오던 유림들이 코로나19의 통제로 참석하지 못하다가 금년에는 완화되어 전남 고흥, 보성, 나주, 경남, 거창 등지에서 많이 참석하였고 지역유림과 용동서원 서예반원이 참석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 문충사 추향제 봉행

이날 초헌관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朴喜祚), 아헌관에는 전남 고흥향교 전교 공영식(孔永植), 종헌관에는 동구문화원장 양동길(梁東佶), 집례 전남 나주향교 장의 이응만(李應滿), 축 회덕향교 장의 이영진(李永珍) 외 타지역에서온 유림들이 집사를 맡아 수고하였다

문충사에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일제의 국권피탈에 항거하다 자결한 연재 송병선을 주향으로 하고 경술 국치에 형 송병선을 따라 자결한 심석재 송병순 형제를 배향한 사우이다.

3. 남간사(南澗祠)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53 우암사적공원내에 있는 남간사(도유사 송인승)에서는 10월16일 (음력 9월2일 초정)에 은진송씨대종회 송석근회장과 종원 대전에 소재한 각종 자원봉사단체 임원들이 많이 참석한 반면 유림은 몇 분 뿐이었다.

그간 의례적으로 기관장들이 헌관을 하거나 종중 대표 또는 학덕과 덕망이 높은 분들이 해오던 것과는 색 다르게 천망되었고, 매년 연정국악원에서 하던 제례악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자(金賢子), 아헌관에는 지방시대연구소장 강영환(姜永桓), 종헌관에는 국제올림픽아드 추진위원장 이종만(李鍾萬), 집례 유학 송인수(宋寅受), 축 유학 류종열(柳鍾烈) 그리고 집사는 회덕향교장의들이 맡아 질서있게 봉행하였다.

남간사에는 문정공 우암 송시열을 주향으로 하고, 문순공 수암 권상하, 석곡공 송상민을 동·서로 배향하고 있다

4. 송현서원(崇賢書院)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51번길36 (원촌동)에 소재한 송현서원 (원장 이종철)은 10월 26일(음력 9월 12일 중정)에 서원에 배향된 8현(賢) 후손들과 대덕구 문화원장이 새로 서원원장이 되어 관내·외 문인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그동안 오래되어 부식되었던 홍살문등을 새로 교체하여 새로운 분위기 속에 엄숙하게 추향제를 봉행 하였다.



▲ 송현서원

이날 초헌관에는 송현서원 원장 이종철, 아헌관에는 동래정씨 종중대표 정진광, 종헌관에는 전민동 자치위원장 김명환, 집례에 회덕향교 장의 김진서, 축에 회덕향교 장의 유종열 그 외 제집사는 회덕향교 장의들이 맡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송현서원에는 문익공 수부 정광필, 문간공 충암 김정, 문충공 규암 송인수, 문원공 사계 김장생, 문정공 동춘당 송준길, 문정공 우암 송시열, 충목공 죽창 이시직, 충현공 야은 송시영 8현(賢)이 모셔져 있다.

〈편집위원 송창공파 송구영〉

초대 국립민속박물관장 삼가공파 故 석남 송석하(石南 宋錫夏)

편집자 주 : 지난 3월경 울산향토사연구회 이상도 회장으로부터 울산 출신인 민속학자 석남 송석하 선생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며, 親系와 出系에 대한 족보 확인 등 자료 요청이 있었다. 삼가공파 백류헌공 계보에서 관련된 부분을 복사하여 보내는 등 교류가 있다가 10월 13일에는 대중회에도 다녀갔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 민속학의 대가이자 민속박물관을 창립하고 초대 국립민속박물관장(현 국립민속박물관)을 지냈고 1996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사실, 199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우리 자손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선조님이라 석남 선조님에 대한 자세한 생애 및 업적과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알리고자 한다.



故 석남 송석하

석남 송석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손진태, 정인섭 등과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한 학자로 삼가공파이며 시조로부터 23세로 울산광역시 상북면 양등에서 태어났으며 1948년 작고하였다. 묘소는 당초 망우리에 있다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로 이장하였다.

고종의 시종부경(侍從副卿)을 지낸 태관(台觀-족보명 觀用)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종숙 원용(援用)에게 양자를 갔다. 1922년 부산 제2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상과대학에 유학하였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귀국하였고, 그 뒤부터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32년에는 그가 중심이 되어 손진태(孫晉泰)·정인섭(鄭寅燮)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고, 종로의 계동 72번지의 자택에 사무실을 두고 사

재를 기울여 민속학의 동인연구지 《조선민속》을 발행하였다.

1934년 이병도(李丙巖)·김두헌(金斗憲)·손진태·이병기(李秉岐)·조윤제(趙潤濟) 등과 함께 진단학회(震檀學會) 창설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945년에는 조선산악회를 창설하여 현대 등산의 선도자가 되었다. 광복 후에는 한미문화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미군정청의 문정관으로 와 있던 인류학자 크네즈(Knez, E.I.)의 도움을 얻고 자신이 수집한 많은 민속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을 1946년에 개관하였다.

또한, 서울대학에 인류학과를 설치하고 강의를 담당하였으며(1946, 47년), 국립민속박물관의 영문 명칭을 '인류학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으로 썼고, 1946년에 발족했던 조선인류학회의 사무실을 민족박물관 내에 마련하는 등 민속학을 더 넓게 인류학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였으나, 병약해서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일찍 별세하였다. 조선민속학회·진단학회·조선산악회장·한미문화협회·서울대학교강사·민속박물관장 등을 지냈다.

그의 수장품 기증으로 설립된 국립민속박물관은 이후 우리 조상들의 민속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전통적인 생활상을 전시하기 위해 1975년 4월 11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관되었다. 한편 그가 1930년대부터 〈동아일보〉·〈조광〉·〈조선민

속〉·〈진단학보〉·〈신동아〉·〈춘추〉·〈동아음악논총〉 등에 민속해설과 이를 통한 대중계몽을 위해 썼던 글을 모아 1960년 양재연(梁在淵)이 〈한국민속고〉를 펴냈다.

그의 유고집 《한국민속고》 외에 그가 남긴 민속 사진들을 담은 도록(圖錄:그림으로 엮은 목록)이 1975년 한국민속박물관에서 출판되었다. 1996년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 송석하 관장모습

한남대 '2023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추파공파 송민용 종원 수상자 선정



송민용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가 11일(수) '2023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는 11월 3일 '2023년 한남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금배지를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는 △목회분야 유갑준 송정제일교회 위임목사(지역사회개발학과 졸) △사회분야 김형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원장(경영학과 졸)

△해외분야 송민용 Minyong Song CPA P.C. 대표(회계학과 졸) △경제분야 차태병 오토피아대전 대표(화학학과 졸) △언론분야 김태울 (주)홈초이스 대표(언론광고홍보학과 졸) 등 5명이다. 해외분야 송민용 대표는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한남대 북미주총동문회 사무총장 및 회장을 맡아 동문들을 적극 지원하였고, 뉴욕 탁구협회장, 뉴욕 대한체육회 감사 등 여러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며 전국체전 100주년시에는 미국선수들을 인솔하는 등 한남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진주 강정임 여사 사이에 두 아들 모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현재 4학년, 1학년 생도과정에 있으며, 대중회 송계용 상무유사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무주공파 영동 심천 재실 안내판 설치

2023.10.15. 무주공파 종중(공사원 송재열)에서는 충북 영동 심천 길현리에 있는 재실(숙모재)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무주공파 파시조 송시걸(時杰)은 贈 영의정 경헌공 수옹 갑조와 정경부인 선산왕씨의 5子(우암 송시열의 아우)로 옥천 구룡촌에서 광해군 12년(1620년)에 태어났으며 숙종 23년(1697년) 하세하셨으며,

소탈하고 수수한 성품으로 벼슬에 있을 때는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일처리와 애민사상을 실천하시었다.

43세에 사산감역을 시작으로 통례원 인의, 한성부 참군, 익위사 위술, 평시서령, 장악원 주부, 군자감 판관의 내직(內職)을 두루 역임하고, 외직(外職)으로는 남평현감, 순창군수, 한성부 서윤, 간성군수, 서산군수, 고양군수, 무주도호부사(종3품)를 지내셨고, 묘는 재실 후 30m 선영에 있

며, 비문은 한수재 권상하(權尙夏)가 짓고 죽천 김진규(金鎭圭)가 글씨를 쓴 묘비가 있다.

과거에는 자손들이 재실 주변에 살았으나,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무주공 선조의 묘소가 조성된 지 300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해주거나, 아는 이가 점점 드물어 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종중 임원 결의에 의해 한글 안내판을 재실 앞에 설치한 것이다. (제공 : 무주공파 송정호 총무)



▲ 재실 안내판

추파공각하 천국종중 선적지 순례행사실시

五穀百果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석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에 선조님에 대한 은혜로움과 종친들의 화목을 도모하고자(崇祖敦睦) 천국

파 자손 종친 여러분을 초대하여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국공(15世 諱之璣)의 천동 산소부터 참례하고 대청호수와 함께 풍광이 아름다운



▲ 조상님 선적지 순례

평산공/정랑공 묘역(8世 諱順年)을 성묘하고 기념 촬영이 있었다.

추원사가 있는 마산동으로 이동하여 유조비(烈婦 高興柳氏 —은진 송씨의 자손을 지켜주시고 키워내신 은혜로운 대단한 열혈장부 할머니) 묘소에 참배드리고 솔내음이 진한 오솔길과 빼어난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추원사 계단에서기념으로 단체사진도 남겼다. 대청호수를 따라 거슬러나오며, 주산동 추파공 묘소(11世 諱麒壽)도 들러 성묘하고 호수가 어우러진 주위가를 정경도 감상하였다.

판암동으로 이동하여 恩宋의 정신적

도량인 쌍청회관과 쌍청당 묘소에 올라 묵념하고 주변도 둘러보다가 어느덧 오후 4시가 되어서 서울종친들의 귀경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날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천국파 종친들 모두 오랫동안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 즐거웠고 보람있는 행사였다고 칭찬하시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우리 세대 이전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도 송조를 위해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도 이길을 다니시며 지켜내오신 유적지묘 묘소임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잘 관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대중종의 원로이신 회원 고문은 평산공 묘소 이장 사업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상히 알려주고, 추파종중 계용회장도 선적지마다 세세하게 설명하여 선조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崇仰코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제공 : 추파공파 송희린 파유사)

민조비(閔祖妣) 산소가 흥룡에 모셔진 이유

동춘선생이 일찍이 1655(효종 6)년 진주정씨 부인을 사별하고, 늦게 계배(繼配) 민씨 부인을 들였으니,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상의 봉어(尙衣奉御) 칭도(稱道)의 후손이다. 아버지의 휘는 규(揆)이고, 어머니는 고성 남씨니 판관 여의(汝義)의 따님이다.

할머니(閔祖妣 : 1644~1713)께서는 1644(인조 22)년 정월 27일에 태어났다.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하며 마음가짐이 빈틈이 없이 철저하였다.

과 년 이 되어 배우자를 선택

하였는데, 동춘 선생이 듣고 배우자로 맞이하였다. 친정어머니 남씨가 말씀하시기를 “송 선생은 대현이다. 우리 딸이 성품과 행실이 명랑하고 현숙하니 가히 부군을 잘 받들 것이다.”라 하고, 날을 받아 따님을 출가시켰다. 할머니가 선생을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다.

임자년(1672)에 선생이 병환이 위중하였다. 할머니께서 침식을 전폐하고 돌아가신 날부터 발인할 때까지 늘 여막(廬幕)에 엎드려 슬퍼하였

다. 풀죽과 미음을 간간이 들고 다만 물만 마실 따름이었다. 선생을 연기 죽안에 장례 지냈다.

민조비(閔祖妣 : 1644~1713)께서 살아계실 때, 연기 죽안 산소가 자리가 좋지 못하여 회덕의 남쪽 끝 흥룡에 천장하여 모셔졌다. (1676~1689)

먼저 할머니께서 자녀를 거느리고 아래로 가서 그곳에 살며 흰옷을 입고 바라보며 슬프게 부르짖어 우시기를

오히려 초상 때와 같이 30년을 지냈다. 할머니께서 하세하자 후손들이 이 터에 장례를 지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자녀들과 함께 선생을 추모하며 사셨던 터가, 바로 할머니 산소 자리다.

할머니께서 후손들에게 평소 말씀하시기를 “내 산소는 동춘 산소가 보이도록 산소 아래에다 써라.”라고 해서 이곳에 쓰게 되었다.

“동춘당 산소가 모셔졌던 곳 (1676~1689)이 지금 보건대학교 본



▲ 민조비 산소

동춘당 별묘(別廟) 봉심(奉審)

기호유학 연구진 및 우암 문정공 종중 종원

2023년 10월 21일 기호유학 연구진(연세대학교 박관규 교수와 5명)과 우암 문정공 종중 종원들(송안호 공사원의 6명)이 동춘당 고택 별묘(不遷位 사당)에 봉심을 마치고 동춘당 및 종택, 소대현 호연재 고택 등 동춘당 및 후손들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봉심(유림들이 문묘에 참배하는 것) 후에 대전 서구 원정동 동춘당 산소를 찾아 참배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번 동춘당 별묘 봉심 및 산소 참배는 우암, 동춘당을 중심으로 기호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교수와 연구진들이 성현의 발자취를 따라 예를 올리고 유적을 탐방하고자 하는 일원이었다고 한다. 또한 우암 문정공 종중의 봉심 및 산소

참배는 양선정(동춘당, 우암)의 일생 동안 지켜왔던 도의관계 및 유지를 받들고 우리 은송을 명문가로 빛나게 한 두 분 선조님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로 후손들 간의 화합 및 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동춘당 별묘 봉심 및 산소참배에 참여한 모든 일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자료제공 :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 동춘당 별묘 봉심 및 산소참배에 참여한 종원

관 앞 운동장 끝쯤에 된다. 파구지(破柢地)라 해서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약 7평 정도 되는 밭이었었다. 보건

대학교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표석이라도 세울 만한 곳이었다.”

〈이당 송성빈〉

〈산야초 이야기 2〉

상사화 (相思花)

이따끔 들리는 시골집은 그야말로 풀 천지다. 신발만 바꿔 신고 곧바로 텃밭행이다. 이곳에서는 바가지나물로 불리는 개망초가 우후죽순(雨後竹筍)이다. 한 가지에 대여섯 개씩 연한 대궁을 올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 묵나물로도 별미인 개망초는 이름만 큼이나 온 밭을 헤매고 다녀 눈총을 받는다. 꽃은 예쁘나 밭을 가꿀라치면 도무지 대책이 없는 잡초다.

담벼락 화단의 풀 천지 사이로 길쭉한 꽃대를 올리고 있는 상사화(相思花)가 만발했다. 뽁뽁하게 우거진 이파리가 한여름이면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연분홍 꽃대를 길쭉하게 올린 것이다. 그 꽃대 위에 더 진한 분홍꽃을 피워 벌과 나비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꽃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미 지고 없는 이파리를 그리



▲ 상사화

워 할 것이다. 잎이 달려 있을 때에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어,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하여 상사화(相思花)라는 이름이 붙여진 식물이다. 그래서 꽃말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상사화는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키는 60cm 정도 자라며 뿌리는 둥근 구형(球形)의 비늘줄기모양이다. 잎은 이 비늘줄기에 모여 나며 여름에 꽃이 나오기 전에 말라 죽는다. 꽃은 비늘줄기에서 나온 꽃자루 위에 무리 지어 핀다. 국내 자생종은 6종류로 흰색, 분홍, 붉노랑, 진노랑, 주황색 등인

데 이 꽃들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볼 수 있다. 이파리가 난(蘭)을 담았다고 해서 개난초로 부르는 지방이 있다. 특히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방 자료에 의하면 상사화의 비늘줄기를 약용한다. 한방에서는 이 알뿌리를 녹충(鹿葱)이라 하여 소아마비에 응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재로 사용한다. 비늘줄기에 들어 있는 성분이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골수를 흥분시켜 소아마비에 진통작용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외에 해열, 해독, 종기, 가래 제거 등의 처방에도 응용된다.

‘이별초’라고도 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꽃’으로도 알려진 상사화(相思花), 잎과 꽃이 일생을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슬픈 인연으로 운명을 타고난 상사화, 웅기종기 모여 꽃대를 서로 비비며 힘겹게 서서 꽃잎을 돌려가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상사화, 바람에 쉬이 꺾일 듯 가냘픈 꽃자루 위에 연분홍 꽃잎을 단 모습은 왠지 아련한 느낌이다.

올해도 피어 꽃을 피운 저 상사화는 그 숙명을 포기하지 않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날 광목에 연분홍빛 물들인 적삼을 입은 우리 누님의 푸석푸석한 얼굴 모습 같은 상사화, 꽃대 위에 사방을 돌려가며 꽃을 피운 내력은 아직도 보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아주 연한 분홍빛 꽃색깔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그리움의 표상 같다.

모두 떠난 빈 집에서 쓸쓸히 집을 지키는 고택이 서글프다. 뒷마루에 앉아 상사화를 바라보니 고향집을 지키는 잡초들이 오늘따라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www.youtube.com〉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

[부음]

전 대종회장 송인식(宋寅植) 고문 별세



대종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대종회 고문이신 沁堂故 송인식님이 숙환으로 2023년 10월 29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기에 부고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4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XI. 충현서원(忠賢書院)

3. 인물 약전

7) 김장생金長生(1548~1631)
조선 중기의 학자 문신으로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 본관은 광산이다. 대사헌 김계휘의 아들로 송익필과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예학에 정통하여 우리나라 예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고 과거를 거치지 않아서 요직 경력이 많지 않지만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영수로 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
향리인 연산에서 학문과 교육으로 많은 생활을 하여 그의 문하에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 당대 높은 명사가 준비하게 배출되었다. 저서로는 상례비요 가례집람 전례문답 의례문해 등 예에 관한 것이 많고 근사록설의 경서변의 사계선생 전서 등이 전한다.
1688년(숙종14)에 문묘에 배향되고 돈암서원 외에 10여 개 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8) 송준길宋浚吉(1606~1672)
송준길의 인물 약전은 종보 제195호 홍암서원에 자세하게 수록하였으므로 본 고에서는 송준길의 문묘 종사에 대하여 기술 한다
문묘 종사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를 받드는 묘우廟宇에 四聖을 배향하고 공문 10월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을 종사하여 태학생太學生의 사표로 삼아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에 건치하였다.
국가에서 국학에 공자를 향사하는 문묘를 세운 것은 한漢 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유학의 도를 높임으로써 제왕의 지도이념을 정하고 어진 덕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여 국가의 명맥이 오래 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어진 사람을 높이야만 후세의 사람들이 성현을 배워 본받고자 할 것이고 천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로 통일되어 도학이 존귀한 줄을 알게 되고 국가의 지도이념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므로 문묘는 곧 한 국가의 지도이념과 원천이자 정신교육의 본산이었다. 우리나라의 문묘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왔지만 중국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유현을 함께 향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묘에 종사 되려면 유학의 도를 발명한 학문이나 유학을 발양한 공이 있어야만 했고 학문과 도덕의 훌륭한이 마땅히 후세의 법식法式이 될 수 있어야 할뿐 아니라 전 시대의 학통을 이어 후세를 열어 줄 수 있는 학문적인 공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온 나라 모든사람들이 논의가 귀일歸一 되어야만 하기때문에 학력이 뛰어난 인물이라 하여도 문묘에 종사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문묘에 종사된 당사자의 문인들은 학문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하였으므로 학자로서 문묘에 종사 되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었다.

송준길과 송시열은 1688년(숙종 14)에 김장생의 문묘 종사가 실현되면서 같은 해에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상소가 잇달았고 1717년(숙종43)에 전라도 유생 정민하鄭敏河(정철의 5대손)가 양송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데 이어 다음 해에 경기 황해 충청 3도의 유생 윤수준尹壽俊 등이 양송과 함께 박세채의 문묘 종사를 청하였을 때 노론계열의 正言 정택하鄭宅河(정인하의 동생)는 양송은 김장생의 적전으로 一世의 공식矜式이 되어 百代의 宗師가 될 수 있으나 박세채는 비록 일세의 명유로 오랫동안 사람의 존모尊慕를 받기는 하나 도학이 그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세채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였다.

양송의 문묘 종사 요청에 소론계열의 이승운李升運은 반대 상소를 올렸고, 정택하는 박세채의 종사를 반대한 데 대하여도 소론측이 사설邪說

로 침저侵誑하였다 하여 양송의 문묘 종사 문제로 노론·소론의 대립이 계속되는 속에서 숙종45년까지 경상도 유생 성덕철成德徹 전라도 유생 정국장鄭國章 5도 유생 이만화李萬和 등이 잇달아 양송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열되는 초기에는 사문의 시비로 대립하였으나 갑술환국 이후에는 희빈 장씨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충역忠逆의 시비 분쟁으로 변질되어 양송의 문묘 종사는 논의될 수 없었다.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죽고 영조가 노론의 비호를 받으면서 즉위하자 서원 사우에서 출향되었던 송시열의 복향이 이루어지고 노론의 신원伸冤 운동이 전개되고 양송의 문묘 종사 운동이 다시 전개되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유림들의 상소가 차례로 이루어졌으나 영조는 자기 왕위 계승과 정권 강화로 전국의 안정을 기하고자 신임사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소론의 계열로 탕평책을 시행하여 당쟁의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초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丁未환국을 단행하여 1727년 일시에 노론계열의 관료 100여 명을 파직하고 소론 정권으로 환국시켜 이제까지 거론되었던 양송 문묘 종사는 단절되었다.

1735년(영조11) 양송의 학덕을 존모尊慕하던 전국의 유생들은 다시 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으나 이이 성훈 김장생의 종사를 청하던 때와 같이 기무譏誣나 변척辨斥의 논란은 없었음에도 영조는 당파의 정통성과 연관되는 문묘 종사를 거

론하여 당론의 대립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문묘 종사는 실현되지 않았다.

1755년(영조31) 을해역옥乙亥逆獄을 계기로 노론 정권이 확립되자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 되었던 양송의 문묘 종사도 자연스럽게 다시 거론되어 1756년(영조32) 2월에 양송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다 (영조실록 권 87)

9) 송시열宋時烈(1607~1689)
조선 후기의 학자 명신으로 자는 명보明甫, 호는 우암尤庵, 시호는 文正, 본관은 은진이다. 김장생 김집으로부터 사사 받고 27세 때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635년 봉림대군의 사부가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일체의 관직을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에 몰두하다 1649년 효종이 직위하자 기용되어 북벌계획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가 서인의 거두 노론의 영수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면서 유배와 사약을 받은 이후 당파 간의 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과 1744년 문묘 배향으로 그의 학문과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은 공인되었고 영조 및 정조 대에 노론의 일당 전제가 이루어 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되고 존중되었다. (상세한 인물 약전은 종보 제 187호에 상술 되었음)

〈다음 호에 계속〉



▲ 강당(박약당)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원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 종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현성금 및 장학금 납부자 명단 (2023.8.22~11.13)

◆쌍청당세일사 성금

추파공파 천곡종중	300,000
부산종친회	300,000
서울 성북종친회	200,000
(사)장사랑공파 양오당종중	100,000
송성현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50,000

◆대중회 장학성금

송석근 대중회장	200,000
----------	---------

◆고액 현성금 납부자

송택번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0,000
송치명 서울 용산구 이촌로	120,000
송삼덕 서울 중구 퇴계로	100,000
송성조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00,000
송세영 경북 영주시 봉현면	100,000
송소현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100,000
송재강 대전 유성구 계룡로	100,000
송찬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00,000
송춘영 경남 함양군 함양읍	100,000
송호룡 경남 김해시 율하3로	100,000
송호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100,000
송호인 대구 서구 평리동	100,000
송호진 대전 서구 신갈마로	100,000
전보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100,000

◆개인 현성금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정영 서울 도봉구 덕능로	50,000
송창용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50,000
송봉이 서울 금천구 금하로	30,000
송영옥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30,000
송영기 서울 서초구 매향로	30,000
송영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000
송경호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30,000
송재선 서울 성북구 길음로	30,000

부산광역시

송두만 부산 금정구 남산동	20,000
----------------	--------

대구광역시

송용호 대구 동구 신천4동	30,000
송덕호 대구 동구 신천4동	20,000

인천광역시

송용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20,000
----------------	--------

대전광역시

송학준 대전 서구 관저로	50,000
송석근 대전 중구 대종로	50,000
송복영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30,000
송영각 대전 동구 성동로	30,000
송근돈 대전 동구 이사동	30,000
송우빈 대전 서구 가수원로	30,000

송영준 대전 서구 관저로	30,000
송치원 대전 중구 태평로	30,000
송인원 대전 서구 가장로	20,000
송원용 대전 서구 둔산북로	20,000
송세빈 대전 서구 요골길	20,000
송일영 대전 서구 용문로	20,000
송낙준 대전 중구 윤남로	20,000

세종특별자치시

송재길 세종 다정북로	30,000
-------------	--------

경기도

송영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30,000
송영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0,000
송원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30,000
송영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30,000
송광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20,000
송돈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0,000

강원도

송영태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30,000
송재순 강원 삼척시 하장면	20,000

충청북도

송정용 충북 보은군 산외면	50,000
----------------	--------

충청남도

송재인 충남 청양군 장평면	30,000
송찬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20,000
송근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0,000

경상북도

송영완 경북 상주시 상산로	50,000
송광식 경북 경산시 와촌면	20,000
송태술 경북 구미시 해평면	20,000

경상남도

송만수 경남 사천시 곤양면	30,000
송영호 경남 거제시 아주2로	20,000
송동호 경남 거창군 거창읍	20,000
송수영 경남 김해시 진영읍	20,000
송종한 경남 남해군 이동면	20,000
송덕기 경남 하동군 황천면	20,000
송길영 경남 함양군 서하면	20,000

주소 및 성명 미상

송영태 5월 19일 하나은행	20,000
송성록 5월 19일 하나은행	30,000
송재흠 9월 6일 하나은행 (서울)	20,000
송정호 9월 7일 지로 (대전)	50,000
송현주 9월 7일 하나은행	10,000
송호경 9월 25일 하나은행	20,000
송호경 10월 31일 하나은행	20,000

선대 세일사 일정표

세일사 날짜	선 대	묘소 소재지	주관자
음 3월 10일	류조비,진사공(克己)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	추원사(1~4세)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음 10월 1일	쌍청당(愼)	대전 동구 판암동	대중회
음 10월 3일	사우당공(國澤)	충북 보은 수한면 발산리	송진팔 010-5450-3533
음 10월 5일	평산공(斯敏)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	정랑공(順年)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음 10월 9일	감역공(奎洛)	대전 동구 마산동	송춘영 010-2878-9114
〃	안소당(國憲)	충북 청주 남일면 두산리	송우영 010-3426-4902
음 10월 첫째 일요일	영천공(昞)	경북 영주 평은면 지곡리	송영식 010-3860-8433
음 10월 초정일	후암공(栢年)	경남 함양 서하면 황산리	송주영 010-6407-3325
음 10월 10일	지평공(繼祀)	대전 동구 주산동	대중회
〃	사직공(繼中)	대전 동구 사성동	사직공 종중
〃	장사랑공(胡年)	대전 동구 마산동	송병수 010-8574-4464
〃	주부공(眉年)	대전 동구 사성동	송광현 010-8329-2495
〃	참봉공(世良)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중호 010-5483-1656
〃	서부공(龜壽)	충북 청주 남이면 사현리	송중호 010-5483-1656
〃	도사공(應期)	충북 청주 남이면 문동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1일	충순위공(世勳)	경남 합천 대정면 유전리	송호덕 010-8626-7201
〃	부원당공(時儉)	충남 계룡 엄사면 도곡리	송재강 010-8811-5453
〃	삼기당공(龍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형현 010-3414-4797
음 10월 12일	연안공(奎淵)	전북 무주 부남면 굴암리	송기선 010-7767-2489
〃	수옹공(甲祚)	대전 동구 판암동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13일	습정공(邦祚)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4일	빙호공(時琰)	충북 청주 남이면 외천리	송명호 010-3707-0160
음 10월 15일	목사공(逢年)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양근공(汝霖)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송지공(世英)	대전 동구 이사동	송능기 010-2755-0827
〃	선무랑공(汝楫)	대전 동구 이사동	송길순 010-5451-2291
〃	진산공(時黻)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호 010-4756-8813
음 10월 16일	안악공(世勳)	대전 동구 이사동	송석태 010-5420-1533
〃	집의공(世勳)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청풍공(世勳)	대전 동구 주산동	송백순 010-3118-0689
〃	송담공(桄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하영 010-4920-5336
〃	판관공(世雄)	대전 동구 이사동	송두식 010-4431-0665
〃	통정공(世勤)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찬 010-5403-2100
〃	진사공(世勤)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환 010-4252-8781
〃	잠부공(汝礪)	대전 동구 주산동	송정현 010-3213-4921
〃	동파공(汝翼)	대전 동구 마산동	송영대 010-3495-4206
〃	안동공(汝諧)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	가평공(世忠)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	통례공(興門)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감역공(鍵)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음 10월 17일	참판공(樺壽)-청죽당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추파공(麒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계용 010-4401-1151
〃	임천공(應瑞)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영천공(爾昌)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송월재공(希得)	대전 동구 이사동	송종영 010-8803-5678
〃	안동공(希建)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쌍계당공(應祥)	대전 동구 비룡동	송철기 010-5428-4366
〃	참판공(希遠)-학유공	대전 동구 이사동	송하영 010-4920-5336
〃	판서공(國銓)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한 010-5408-7027
〃	취옹당(希命)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고창공(國士)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	삼가공(桂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장령공(希進)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음 10월 18일	호군공(國重)	대전 동구 이사동	송덕영 010-3005-6393
〃	송창공(綏祿)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영 010-8821-0909
〃	자산공(世協)	대전 동구 판암동	송이영 010-5456-8997
음 10월 19일	제월당공(奎濂)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송인무 010-5597-7762
〃	송지공(玲)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팔 010-5450-3533
〃	금암공(夢寅)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팔 010-5450-3533
양 3월 마지막일요일	장성공(時熹)	충북 보은 수한면 교암리	송준호 010-2036-8464
양 4월 둘째 일요일	무주공(時杰)	충북 영동 심천면 질현리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셋째 일요일	첨사공(世勗)	대전 동구 이사동	송서호 010-5409-3211
양 11월 첫째 일요일	우봉공(應光)	경기 고양 신도면 현천리	송영준 02-2274-6987
양 11월 둘째 토요일	장사랑공(栢壽)	충북 충주 엄정면 논감리	송한섭 010-9321-7955
양 11월 둘째 일요일	모은공(基想)	전북 고창 해리면 평지리	송재경 010-4614-2323
양 11월 셋째 토요일	규암공(麟壽)	충북 청주 문의면 남계리	송재웅 010-5308-0765

제사 날짜	선조	제사 장소	주관자
不桃之典 음 12월 2일	동춘당 문정공(浚吉)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공 종손
不桃之典 음 6월 8일	우암 문정공(時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우암공 종손
不桃之典 한식전일요일	야은 충헌공(時榮)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야은공 종손
不桃之典 음 7월 13일	늑천공(明欽)	경남 진주시 초장로	늑천공 종손

현성금 협조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원들께서 납부하신 현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원께서는 현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협 : 351-1084-0817-03

= 恩宋의 文化財 (21회) =

57. 송시열상(宋時烈像)

• 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9호

• 분 류 :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 수량/면적 : 1軸

• 지 정 일 : 2003.09.05.

• 시 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서울역사박물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이 초상화는 복건(幅巾)에 학창의(鶴氅衣, 백색 천으로 만들고 옷 가장 자리에 검정 비단으로 선을 두른 선 비들의 옷)를 착용하고 공수(拱手) 자세를 취한 송시열의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 반신상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년~1689년)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문인으로서 정치적으로 기복이 심한 삶을 영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일생을 주자학 연구에 몰두했던 거유(巨儒)로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루면서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들을 길러낸 인물이다. 따라서 사후 그를 추모하여 받드는 수많은 사우(祠宇)가 다수 건립되었는데 그중 위판(位板, 위패라고도 함)이 아니라 영정을 봉안했던 영당(影堂) 및 사당(서원 부속)만 해도 적지 않은 수에 이른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송시열상 역시 이러한 영당이나 사당에 봉안되었던 초상화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국보 제239호 송시열상(宋時烈像)을 보고 베껴 그린 이모본(移模本) 가운데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는 이 그림은 안면 처리에 있어서는 안색을 짙은 살색으로 칠하고 안모(顔貌)의 울퉁불퉁한 외곽과 이목구비를 규정하였으며 윗눈꺼풀은 가는 묵선으로 처리하고 어두(魚頭)와 어미(魚尾) 부분 안쪽으로 붉은 기운을 약간 집어넣어 노인의 충혈된 눈을 묘사하였다. 얼굴의 주름살을 선묘(線描) 위주로 처리하고 범령과 볼 부위의 주름진 곳에는 회색 선염(渲染, 색칠할 때에 한쪽을 진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차차 옅게 칠하는 일)을 짙게 넣었으며 귀의 굴곡진 부분에도 선염기를 삽입하였다. 의복의 외곽선과 의습(衣褶) 처리에서는 선염기 없이 선으로 그은 다음 외곽선과 주름선을 따라 희게 하

이 라이트를 주어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국보 제239호 송시열상과 형태와 규격이 같으나 전체적인 기법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본보다 거칠게 처리되었고 제작 시기도 조선조 후기에서 말기 사이로 내려오지만, 조선 후기에서 말기로 내려오는 시기의 기법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도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인물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조선조 유학자의 풍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복건 부분에 박락이 상당 부분 보이지만 얼굴 부분과 의복 부분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58. 도봉서원(道峯書院)과 각석군(刻石群)

• 종 목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4호

• 분 류 : 유적건조물

• 수량/면적 : 각석 11基, 토지 20,557.4㎡

• 지 정 일 : 2009. 10. 22.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90 (도봉동)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등



▲ 북호동천(각자)



▲ 고산양지(각자)

도봉서원은 조선 전·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配享: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냄)한 사액서원(賜額書院: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백사 이항복 등 저명한 시인

묵객들이 시문을 남긴 오늘날 서울 지역 내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다.

비록 1871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어 유적의 대부분이 멸실되었으나, 서울 지역 내 다른 서원과 달리 사당의 기단과 옛 사료상의 도봉서원 유적으로 소개된 각석군(刻石群)이 서원터 앞 계곡에 대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어 유적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유적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각종 문헌이나 시에서 오랫동안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히던 경승지(景勝地)에도 해당하므로 보존 가치가 크다.

59. 우암 송시열 초구 1령(尤庵 宋時烈 貂裘 1領)

• 종 목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4호

• 분 류 :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 수량/면적 : 1着

• 지 정 일 : 1977. 09. 05.

• 시 대 : 조선 시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초구는 ‘담비’라는 족제비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른다. 이 옷은 조선 효종이 입던 겹저고리를 우암 송시열에게 하사한 것이다.

노란 털의 빛깔이 곱고 따뜻해 보이는 이 옷은 양팔을 벌린 너비가 184cm이며, 등슬기의 세로 길이는 95cm이다. 안쪽 면에는 우암의 친필로 옷에 얹힌 내력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원래 비단 천으로 된 안감이 있었는데, 우암이 죽어 저세상으로 갈 때 임금이 하사한 옷을 전부 입고 갈 수는 없다 하여 안감만 뜯어 입고 가서 모피만 남은 것이라 전한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인조 4년(1626)에 봉림대군으로 봉해졌는데, 이때 우암이 그의 스승으로 임명되면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병자호란 때 봉림대군이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자 우암은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였고, 효종이 즉위하여 우암에게 관직을 주어 부르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 효종의 북벌계획의 핵심인물로 발탁되어 활약하였다. 이후 김자점 일파가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 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우암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효종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즉위 10년 만인 1659년에 승하하였다. 생전에 효종은 북벌 때 청나라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라고 이 옷을 하사하였는데, 우암은 때때로 그 뜻을 되새기며 옷을 붙잡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왕이 하사한 옷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굳은 의리를 느끼게 하는 상징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옷의 안쪽 면에 우암의 친필로 적어 놓은 기록 또한 보기 드문 모습이다.

▲ 도봉서원